

나이없는 계절

지선경

같은 계절은 돌아오지 않는다

어느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길을 걷다 문득 계절의 변화를 감지했다. 나뭇잎의 색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고, 공기는 이전과 다른 밀도를 띠고 있었다. 그 변화는 사소했지만, 나는 시간의 이동을 분명히 느꼈다.

우리는 “계절이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계절이 늙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시간은 우리의 몸과 감각을 조금씩 다른 질감으로 바꾸지만, 계절은 매번 다른 얼굴로 되돌아온다. 그 차이는 자연의 법칙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감각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른다.

최근의 대화와 경험 속에서 서로 다른 속도의 문제는 자주 되돌아왔다. 고유한 속도로 흐르는 개인의 시간과 성과의 빠른 가시화를 요구하는 외부의 압축된 리듬 사이에서, 나는 시간과 공간이 몸에 닿는 방식을 이전과 다르게 느끼게 되었다. 익숙했던 풍경들은 문득 낯선 표면을 드러내고, 신체가 감지하는 안과 밖의 시차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날의 공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긋남들이 얇게 포개진 하나의 층처럼 다가왔다.

나는 계절을 단순한 반복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봄이 오는 것 같아도 이미 사라진 꽃과 새로 피어난 꽃은 다르고, 같은 겨울처럼 보여도 빛의 각도와 습도는 조금씩 어긋난다. 계절은 돌아오지만 동일하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반복과 변형 사이에서 나는 ‘나이없는 계절’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것은 계절이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숫자나 달력의 단위로 정리되기 전, 오래전의 장면과 막 도착한 변화가 몸 안에서 다시 겹쳐지는 지각의 상태에 가깝다.

겹쳐진 시차, 잠긴 표면

어떤 공기는 오래전의 장면을 다시 불러오고, 어떤 빛은 방금 스쳤는데도 이미 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기억은 분명 과거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현재의 피부 위로 다시 올라온다.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만, 몸 안에서는 지나간 감각과 방금 감지한 변화가 서로 다른 시차로 겹쳐진다. 나는 그 겹침이 선명한 형태를 갖기 전, 낯섦과 친숙함이 함께 놓여 있는 문턱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나의 작업은 내가 머물렀던 장소들의 서로 다른 속도와 함께 움직여 왔다. 베를린의 다층적인 리듬, 한국 소도시의 느린 공기, 서울의 압축된 속도는 각각 다른 시간의 편차와 잔상을 남겼다. 그 장소들은 지나간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느 날의 빛이나 냄새, 표면의 질감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나는 그것들을 색과 질감, 형태와 간격의 관계 속에 다시 놓아본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은 물질의 표면과 그림자, 색과 외피 속에 잠겨 있다. 나는 그것들을 자르고, 오리고, 겹치고, 다시 배치하면서 시간이 남긴 흔적을 하나의 조형적 장면으로 옮겨왔다.

흩어진 빛의 별자리

이번 전시에 놓인 평면 작업들은 이러한 시간의 신호를 빛, 색, 선, 재료의 밀도가 화면 안에서 잠시 모이는 장면으로 다룬다. 〈TC, Transient Constellations〉 시리즈는 지나가는 빛의 방향과 손의 속도, 젖고 마르는 표면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각각의 화면은 한 날의 습도와 다른 날의 빛, 손의 움직임과 재료가 제 무게를 드러내며 굳어지는 시간을 지나 만들어졌다.

나는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동하는 별자리를 떠올렸다. 별자리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거리와 시간에 놓인 빛들이 관찰자의 시선 속에서 잠시 묶이는 형식이다. <TC>에서 선과 면, 작은 색의 조각과 남은 자국들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도착해 한 화면 안에 놓인다. 그것들은 잠시 이어지지만 언제든 다시 흩어질 수 있고,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되기 전의 상태에 머문다.

외피에 머무는 신호들

입체 작업들은 앞선 신호들이 사물의 외피와 구조 가까이 다가간 장면들이다. 멜론이 완전히 익기 직전의 연두빛, 딸기가 붉어지기 전의 색, 보호의 역할을 다한 껍질과 포장재, 늦게 도착한 그림자 같은 것들이 표면 위에 남는다. 색은 장식이 아니라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되고, 익기 전, 열리기 전, 정해지기 전의 시간이 사물의 외피에 머문다.

<흐르다 만 그늘>(2025)은 팔각의 껍질 구조와 굳어진 그림자를 통해 흐르다 멈춘 시간의 표면을 다룬다. 멜론이 완전히 익기 직전의 연두빛은 여러 층으로 칠해지고, 내부에서 파생된 그림자는 레진으로 굳어 바닥에 놓인다. 그것은 그림 사이면서 흐르다 멈춘 과즙 같고, 과즙이면서도 응고된 시간의 껍질처럼 보인다.

<익지 않은 신호>(2025)는 와인 오프너의 스크루 구조를 거꾸로 세운 뒤, 딸기가 완전히 익기 직전의 색을 표면에 입힌 작업이다. 원래 구조가 지녔던 개봉의 기능은 멈추고, 그 위에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않은 생장의 색이 겹쳐진다. 열리기 전의 시간이 사물의 구조 위에 잠시 머문다.

<보호 이후>(2026)는 생명이 빠져나간 뒤에도 보호의 형식만 남은 껍질과 포장재, 금속 조각들이 다시 관계를 이루는 작업이다. 타조알 껍질 위에 포도를 암시하는 색을 입히고, 이동과 보존에 사용되었던 포장재와 기호의 파편들을 다시 배치했다. 감싸고, 운반하고, 보존했던 시간은 외피와 금속 봉, 작은 조각들 사이에 남아 있다.

되돌아오지만 같지 않은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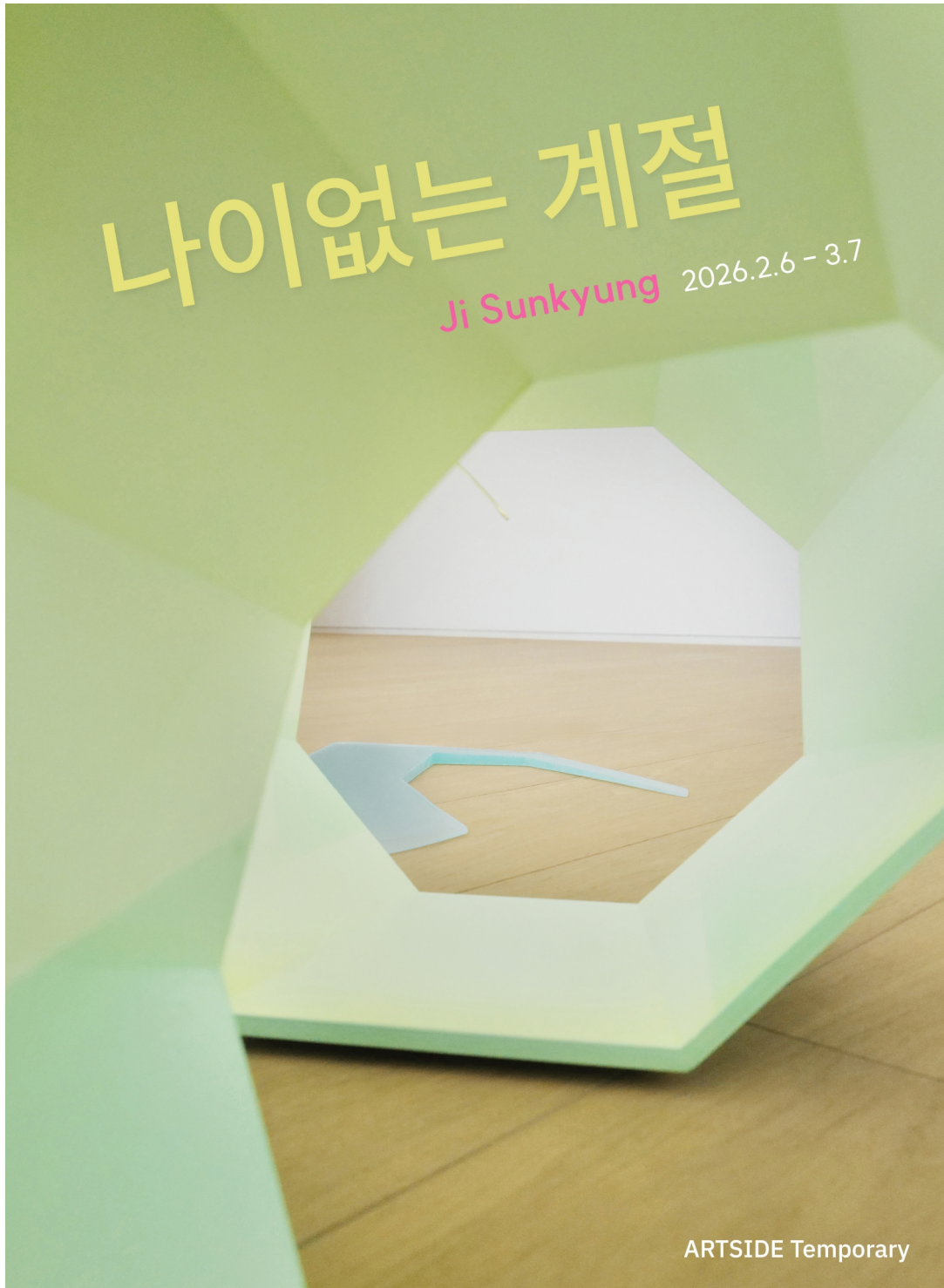
평면과 입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나간 시간이 어떻게 표면에 남고 다시 형식을 얻는가라는 질문을 나누고 있다. 흩어진 빛과 자국들이 화면 안에서 잠시 별자리를 이루고, 입체 작업들은 그 신호들이 외피와 구조를 얻은 뒤에도 하나의 의미로 쉽게 닫히지 않는 순간에 머문다. 지나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시간, 돌아왔지만 이전과 같지 않은 계절의 감각이 그 안에 있다.

《나이없는 계절》은 그 상태를 하나의 공간 안에 머물게 하려는 시도다. 시간이 숫자나 달력으로 정리되기 전, 빛과 색, 외피와 그림자, 흩어진 자국들이 잠시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장면. 돌아온 것들은 이전과 같지 않고, 지나간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 사이에 남은 작은 차이들을 바라본다.

※ 《나이없는 계절》의 ‘나이없는’은 ‘나이 없는’을 의도적으로 붙여 쓴 조어이다.



<https://www.jisunkyoung.com/show-2026>



© 2026 Sunkyoung Ji.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는 작가 아카이브의 일부이며, 작가의 허가 없이 무단 복제, 편집, 전재 및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